

---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 地域語의 子音音韻現象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金 光 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洪 誠 海

1987年度

---

濟州 地域語의 子音音韻現象에  
關한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洪 誠 海

指導教授 金 光 雄

1987年 月 日

洪誠海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7年 月 日

主審 김홍식 (인)

副審 김광음 (인)

副審 김태근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I. 緒 論 .....	1
II. 音韻設定 .....	3
2.1. 子音體系 .....	3
2.2. 母音體系 .....	4
2.3. 音韻的 資質圖 .....	5
III. 中和現象 .....	7
IV. 口蓋音化 .....	14
4.1. /k/一系 口蓋音化 .....	14
4.2. /t/一系 口蓋音化 .....	18
4.3. /h/ 口蓋音化 .....	21
V. 硬音化 現象 .....	24
5.1. 語頭硬音化 .....	24
5.2. 語中硬音化 .....	27
VI. 有氣音化 現象 .....	33
VII. 結 論 .....	37

## I. 緒 論

초기의 地域語<sup>1</sup>에 대한 研究는 文獻的·資料의 限界性을 보충하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地域語 자체의 研究가 하나의 독립되고 확고한 國語研究의 한 分野를 이룬 가운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地域語에 대한 研究는 音韻論的 觀點을 넘어 점차 形態論的·文法論的 觀點의 次元으로 더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濟州地域語는 濟州島라는 地理·文化的인 特殊性으로 本土와는 다른 하나의 자연스런 言語群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단 형성되어진 言語에 대해서는 本土의 改革的인 言語變化를 認知할 수 없는 言語의 保守性을 지니고 동시에, 하나의 고립된 地域語 자체에서의 通時的인 變化를 거침으로써 本土보다도 더욱 前進的인 變化를 보이는 言語의 改革性도 가지고 있어서 濟州地域語는 한 마디로 言語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濟州地域語의 兩面性은 通時的인 觀點에서 古語 殘存의 價値를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는 文獻時代 以前의 古語까지를 再構成할 수 있는 좋은 資料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또한 國語史의 한 흐름을 통하여 앞으로의 國語變遷을 추측할 수 있는 可能性까지를 지니는 데서 濟州地域語研究의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濟州地域語의 價値에 비하여 그에 대한 研究는 매우 편협적이었고 특히 音韻論的 側面에서는 研究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現時點에서의 音韻論은 子母音의 體系에 대한 問題와 音韻現象과의 有機的인 解釋뿐만 아니라 生成音韻論的 接近을 시도함으로써 音韻現象을 보다 정밀하게 規則化하고 있다. 이에 本稿는 이러한 音韻論的 研究에 따라 濟州地域語의 音韻現象을 기술하여 濟州地域語의 精確한 子音體系를 樹立하는 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하는 바, 특히 濟州地域語에 두드러진 中和現象, 口蓋音化現象, 硬音化現象, 有氣音化現象 등 無聲 阻害音에 관한 音韻現象으로 局限하려 한다.

濟州地域語의 音韻現象에 관한 考察을 수행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들을 前提로 한다.

첫째, 濟州地域語의 無聲 阻害音에 관한 音韻現象은 中部語와 濟州地域語와의 比較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共時的 觀點에서의 研究가 기본적이거나 濟州地域語의 本質을 糾明함에 있어서는 여러 文獻資料를 통한 通時的인 觀點에서의 接近도 시도되었다.

둘째, 資料標集은 제주도 외곽지역의 65세 이상의 老人들을 提報者<sup>2</sup>로 삼은 現場標集을 바탕

1) 本稿에서는 方言이라는 명칭 대신에 地域語, 相對的인 概念으로는 中部語라 지칭한다.

2) 제주도 삼양1동: 박영백(74세·여), 고남일(74세·여), 천치희(84세·여), 김선미(80·여), 한정임(74세·여), 홍재병(68세·여), 안태길(79세·여), 고천근(84세·여)

제주도 삼양2동: 강명출(60세·여), 김병림(66세·여), 김신생(73세·여), 장태일(65세·여)

제주도 화북1동: 김무생(66세·여), 고남일(70세·여)

제주도 도평동: 김형하(81세·여), 오임생(72세·여), 좌춘생(76세·여), 문순애(55세·여).

으로 하여 안덕면과 구좌면 일대의 지역어까지도 다루었다. 그리고 지역어로表記된 여러 文獻들을 통하여 미비한 資料들을 補充하였다.

세째, 어느 地域語를 막론하고 地域語라는 것은 이미 文獻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地域民의 發音만을 研究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그 基底形을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本稿는 基底形에서 나타나는 原理보다는 發音上의 表面形을 다루는 音韻現象에 관한 것이므로 濟州地域語는 항상 音聲表示 [ ]로 나타내었고, 그 基底形은 音韻表示 / /로 나타내었다.

네째, 本稿는 子音を 중심으로 한 音韻現象에 관한 것이나 母音에 대해서도 濟州地域語의 發音 制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中部語에서의 /ε/나 /e/에 대해서 濟州地域語의 表面形에서는 모두 [e]로表記했고, 또 濟州地域語에서만 發音 가능한 母音 /•/에 대해서는 [ʌ]로表記하였다.

## Ⅱ. 音 韻 設 定

### 2.1. 子音體系

濟州地域語의 子音體系는 他地域語와 比較해 볼 때 別다른 差이를 보이지 않는다.

(1)	# —		— # — c	
/p/	/pes/	(별)	/səp/ [səp̃]	(앞)
/p'/	/p'e/	(빼)	—————	
/p <sup>h</sup> /	/p <sup>h</sup> As/	(판)	/jAp <sup>h</sup> / [jAp̃]	(열)
/t/	/tAr/	(달)	/tAtta/ [tAt'a]	(달리다)
/t'/	/t'Ar/	(딸)	—————	
/t <sup>h</sup> /	/t <sup>h</sup> e/	(떼)	/mər imat <sup>h</sup> / [mər imat̃]	(머리맡)
/č/	/čir/	(길)	/nač/ [nat̃]	(낮)
/č'/	/č'ik/	(값)	—————	
/č <sup>h</sup> /	/č <sup>h</sup> ič ita/	(찢다)	—————	
/k/	/kAs+r/	(가을)	/čuk/ [čuk̃]	(죽)
/k'/	/k'oč <sup>h</sup> i/	(고추)	—————	
/k <sup>h</sup> /	/k <sup>h</sup> rr ita/	(볼다)		
/h/	/hata/	(많다)	/čoh —/ [čot̃]	(좋-, 好)
/s/	/səktA/	(씩다)	/jəs/ [jət̃]	(엿)
/s'/	/s'ata/	(싸다)	—————	
/m/	/mAsim/	(가을)	/momto/ [momdo]	(몸도)
/n/	/nun/	(눈)	/sinpar/ [šinbal]	(신발)
/ŋ/	—————		/naŋ/ [naŋ]	(나무)
/r/	/t+r+/	(들)	/nAmAr/ [nAmAl]	(나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聲으로 쓰이는 音韻으로는 /ŋ/를 제외한 18개 子音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終聲으로 쓰이는 子音들은 中和規則에 의하여 /p, p', p<sup>h</sup>/는 [p̃], /t, t<sup>h</sup>/, /c/, /s/는 [t̃]로, /k, k', k<sup>h</sup>/는 [k̃]로 되며 /m, n, ŋ, r/ 등 [+son]만 終聲에서 제 音價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語末에서의 終聲은 /p/, /t/, /k/, /m/, /n/, /ŋ/, /r/의 7개 音韻에 限한다.

이들의 子音音韻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初聲體系

/p/ (ㅍ)	/t/ (ㅌ)	/c/ (ㅊ)	/k/ (ㄱ)
/p'/ (ㅍㅍ)	/t'/ (ㅌㅌ)	/c'/ (ㅊㅊ)	/k'/ (ㄱㄱ)
/p <sup>h</sup> / (ㅍ <sup>h</sup> )	/t <sup>h</sup> / (ㅌ <sup>h</sup> )	/c <sup>h</sup> / (ㅊ <sup>h</sup> )	/k <sup>h</sup> / (ㄱ <sup>h</sup> )
	/s/ (ㅅ)		
	/s'/ (ㅅㅅ)		
/m/ (ㅁ)	/n/ (ㄴ)		
	/r/ (ㄹ)		

(3) 終聲體系

/p/ (ㅍ), /p <sup>h</sup> / (ㅍ <sup>h</sup> )	→ [pʰ]
/t/ (ㅌ), /t <sup>h</sup> / (ㅌ <sup>h</sup> ), /c/ (ㅊ), /s/ (ㅅ)	→ [tʰ]
/k/ (ㄱ)	→ [kʰ]
/m/ (ㅁ)	→ [m]
/n/ (ㄴ)	→ [n]
/ŋ/ (ㅇ)	→ [ŋ]
/r/ (ㄹ)	→ [r]

2.2. 母音體系

濟州地域語의 母音體系는 中部語와 다소 차이를 두고 있는데, 濟州地域語에서 사용되는 單母音으로는 /i, e, ɛ, ə, a, u, o, ʌ/ 등 8 母音體系로 연령층에 따라 共時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4) 單母音

/i/ (ㅣ)	/ɛir/ (길)
/e/ (ㅐ)	/t <sup>h</sup> e/ (메)
/ɛ/ (ㅓ)	/t <sup>h</sup> ɛta/ (뜨다)
/ə/ (ㅓ)	/məktə/ (먹다)
/u/ (ㅜ)	/pas/ (밭)
/u/ (ㅡ)	/kusin/ (귀신)
/o/ (ㅜ)	/sos/ (술)
/ʌ/ (ㅜ)	/mar/ (말)

濟州地域語의 單母音에서 특이한 점은 /ɛ/와 /e/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여 모두 /e/로 實現되고 있는 것이며 /ɔ/의 발음은 전혀 實現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17세기 이후에 소멸되었던 /ʌ/ (ㅜ)의 音價가 濟州地域語에서 實現되고 있음은 濟州地域語의 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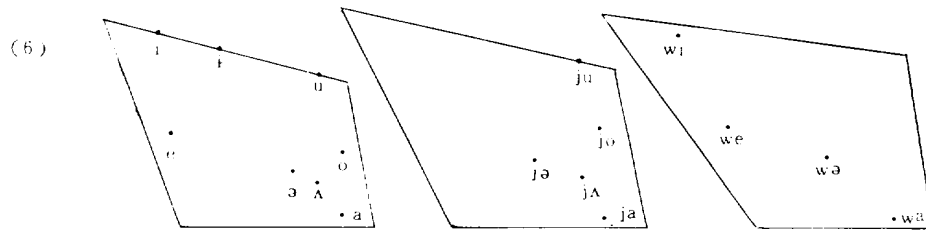
究價値를 더욱 높여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二中母音에 쓰이는 半母音으로는 /j/와 /w/를 들 수 있다.

(5) 二重母音

a.	/ja/	(야)	/jarita/	(여러다)
	/jə/	(여)	/jəp/	(엿)
	/jo/	(요)	/joksim/	(육심)
	/ju/	(유)	/jus/	(웃)
	/jʌ/	(어)	/jʌtʌp/	(여덟)
b.	/wa/	(와)	/warita/	(조금하다)
	/wə/	(워)	/wənak/	(위낙)
	/we/	(웨)	/swe/	(소)
	/wi/	(위)	/swintari/	(원다리-음식의 일종)

濟州地域에서 쓰이는 母音들을 表로 나타내면 (6)과 같다.



2.3. 音韻의 資質圖

(7) 子音의 資質

	p	p <sup>h</sup>	p'	t	t <sup>h</sup>	t'	s	s'	c	c <sup>h</sup>	c'	k	k <sup>h</sup>	k'	m	n	r	ŋ	h	w	j	
Consonantal	-	-	+	+	+	+	+	+	+	+	+	+	+	+	+	+	+	+	+	-	-	-
Vocalic	-	-	-	-	-	-	-	-	-	-	-	-	-	-	-	-	+	+	-	-	-	-
anterior	-	+	+	+	+	+	+	+	-	-	-	-	-	-	-	+	+	+	-	-	-	-
coronal	-	-	-	+	+	+	+	+	+	+	+	-	-	-	-	-	+	+	-	-	-	-
nasal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ent	-	-	-	-	-	-	+	+	-	-	-	-	-	-	-	-	+	+	+	-	+	
aspirate	-	+	-	-	+	-	-	-	-	+	-	-	-	-	-	-	-	-	-	+	-	-
tense	-	+	-	-	+	+	-	-	-	-	-	-	+	+	-	-	-	-	-	-	-	-

(8) 母音的 實質

	i	ĩ	e	ɪ	ə	a	u	o
Consonantal	-	-	-	-	-	-	-	-
Vocalic	+	+	+	-	+	+	+	+
high	+	+	-	+	-	-	+	-
Low	-	-	-	-	-	+	-	-
sack	-	-	-	+	+	+	+	+
round	-	+	-	-	-	-	-	+

### Ⅲ. 中 和 現 象

國語에는 音韻結合에 있어 制約을 갖고 있기 때문에 音節末 位置에 있는 子音이라 하여도 전부 발음될 수 없고, 특히 둘 이상의 子音이 연속되어 있어도 그 둘을 모두 發音할 수 없다. 現代國語의 音節構造는  $C_0VC_0$ 로 집약할 수 있는데 子音은 音節末 位置에서 子音으로서 작된 形態素 또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自立形態素의 연결에도 制約을 받으므로 音節末 位置의 [+obst]의 資質을 갖는 子音들은 中和되어 발음된다. 이는 傳統的인 國語音韻論의 七終聲法則과 관련하는 것인데 表面形의 音節末 位置에 올 수 있는 子音은 [p<sup>l</sup>, t<sup>l</sup>, k<sup>l</sup>, m, n, l, ŋ]의 일곱 개 뿐임을 뜻한다.

濟州地域語에서의 中和現象도 他地域語와 별다른 차이없이 單一語, 複合語에서 강렬하게 生成되고 있으며 體言의 曲用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9)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9) a.	— #	— to(도)	— kwaj(과)	— i(이)	— +l(음)
/pap/ (밥)	pap <sup>l</sup>	pap <sup>l</sup> t <sup>o</sup>	pap <sup>l</sup> k'waj	pabi	pab+l
/həmpək/ (형걸)	həmpək <sup>l</sup>	həmpək <sup>l</sup> t <sup>o</sup>	həmpək <sup>l</sup> waj	həmpəgi	həmpəg+l
/pas/ (밭)	pat <sup>l</sup>	pat <sup>l</sup> t <sup>o</sup>	pak'waj	paši	paʃ+l
/pek'əs/ (바깥)	pek'ət <sup>l</sup>	pek'ət <sup>l</sup> t <sup>o</sup>	pek'ək'waj	pek'əši	pek'əʃ+l
/unsŋək/ (웃녘)	unsŋək <sup>l</sup>	unsŋək <sup>l</sup> t <sup>o</sup>	unsŋək'waj	unsŋəgi	unsŋəg+l
/nač/ (낮)	nat <sup>l</sup>	nat <sup>l</sup> t <sup>o</sup>	nak'waj	naʃi	naʃ+l
/nas/ (낮)	nat <sup>l</sup>	nat <sup>l</sup> t <sup>o</sup>	nak'waj	naši	naʃ+l
/jAp <sup>h</sup> / (열)	jAp <sup>l</sup>	jAp <sup>l</sup> t <sup>o</sup>	jAp <sup>l</sup> k'waj	jAbi ~ jAp <sup>h</sup> i	jAb+l
/ap <sup>h</sup> / (알)	ap <sup>l</sup>	ap <sup>l</sup> t <sup>o</sup>	ap <sup>l</sup> k'waj	abi ~ ap <sup>h</sup> i	ab+l

b. [sup <sup>h</sup> ɕ'ɪl] (술길)	[ɕ'ɪk'ɕ'in] (깃신)
[p <sup>h</sup> ɕ'ɪk <sup>l</sup> ] (갈숙)	[puək <sup>l</sup> p'aj] (부엌방)
[kəp'ət <sup>l</sup> ] (꽃밭)	[jək'arak <sup>l</sup> ] (엿가락)
[məŋmə:l] (떡물)	[ok'of+m] (옷감)

이상은 體言의 曲用과 複合語에서의 中和現象을 보여주는 語彙들이다. (9. a)에서는 休止 앞에서나 [+obst]인 子音 앞에서의 中和現象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濟州地域語에서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도 일단 先行音節의 末音이 中和된 다음 그 음을 연결시키고 있어 中和作用의 母音 앞에서까지 전진적으로 퍼져감을 보인다 하겠다. 즉 中部語에서는 母音語尾 앞에서



用言 語幹末音의 中和現象은 體言 語幹末音과는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으니 /i/i/가 첨가된 형태로 나타나 中和現象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 (12) a. [ipʰt'a] (입다) [nukʰ'i] (눅지)  
 [ma ʌpʰt'a ~ ma ʌjʌpʰt'a] (마립다) [pučʰirəpʰk'okʰ] (부끄럽고)  
 [tilda] (들다) [puŋ'i] (붙지)  
 [kəŋgokʰ] (겉고) [mulda] (묻다)  
 [səkʰt'a] (씩다) [ik'okʰ] (익고)  
 [məkʰ'i] (먹지) [nokʰ'i] (녹지)

- b. [təkʰt'da ~ təpʰt'da] (털다)  
 [čipʰt'da ~ čipʰt'a] (질다)  
 [kəpʰt'da ~ kəpʰt'a] (갈다)  
 [tədʰt'da ~ təkʰt'da] (닫다)  
 [čideda ~ čit'a] (덜다)  
 [tʰt'da ~ tʰt'a] (졸다)  
 [kətʰt'da ~ kətʰt'a] (갈다)  
 [matʰt'da ~ mat'a] (만다)  
 [pəkʰt'da ~ pətʰt'da] (뻗다)  
 [jətʰt'da ~ jəpʰt'da] (얕다)  
 [šišida ~ čit'a] (씻다. 造)  
 [pušida ~ put'a] (붓다)  
 [našida] (낫다)  
 [ušida ~ ut'a] (웃다)  
 [šičʰida ~ šit'a] (젓다)  
 [šəjida ~ šət'a] (젓다)  
 [kójida ~ k'ot'a] (꽃다)  
 [nəjida ~ nit'a] (눅다)  
 [čočʰida ~ čot'a] (꽃다)  
 [pokʰt'da] (뿜다)  
 [həkʰt'da ~ səkʰt'da] (습다)  
 [mukʰt'da] (뭉다)  
 [nakʰt'da] (낙다)

用言의 活用에 있어 (12, a)는 中和現象을 보이는 語彙들이고 (12, b)는 音節伸張을 일으켜 中和를 벗어나고 있는 語彙들이다. 한 研究에 의하면 語幹末音이 받침으로 끝난 用言 268개를 조사한 결과 音節伸張을 일으키는 用言의 數는 169개, 音節伸張을 일으키는 形態와 일으키지 않은

形態를 모두 갖춘 雙形을 갖는 用言의 數는 34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8)</sup> 이 결과로 보면 音節伸張이 일어나는 用言의 數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12, a, b)에서 보듯이 1음절의 語幹을 갖는 用言의 末音들은 濟州地域語에서 音節伸張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用言의 語幹末音에 많이 쓰이는 子音으로는 /p, p<sup>h</sup>, t, t<sup>h</sup>, k, č, s/ 등이 있는데, 音節伸張이 일어나지 않는 語彙에서의 語幹末音은 주로 /p, (t), k/로 나타나고 音節伸張을 이루는 語幹末音은 /p<sup>h</sup>, t, t<sup>h</sup>, č, s/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用言이 音節伸張을 일으킨다고 하겠다. 단 여기에서 /t/를 語幹末音으로 갖고 있는 用言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걸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音節伸張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의 /t/는 濟州地域語에서 /r/로 나타나는 正則活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音節伸張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대로 /t/에 母音이 挿入되고 있다.

또한, 音節伸張을 형성하는 데 있어 中世國語에서는 母音調和原則에 따라 /Λ/i/를 挿入한 반면, 中世國語와 비교해 볼 때 濟州地域語에서는 /i/i/가 挿入된 형태로 나타난다. 왜 이러한 挿入이 허용되었는가에 있어서는 本稿에서 다루지 않겠으나 [+obst, +cor, +strid]의 資質을 갖는 /č, č<sup>h</sup>, s/을 語幹末音으로 갖는 用言에서는 거의 /i/가 挿入되고 있고, 그 외에는 /i/가 挿入되어 音節伸張이 되었다.

(13) a.	- kək(코)	- či(치)	- tərə(티라)	- i:məŋ(으먼)
/čohta/ (종다)	čok <sup>h</sup> ok	čoč <sup>h</sup> i	čot <sup>h</sup> ərə	coiməŋ
/nuta/ (농다, 닳다)	nogok	noji	nodərə	noməŋ
/nata/ (낭다)	nagok	naji	nadərə	naməŋ
/t'apta/ (땅다)	t'ap <sup>h</sup> k'ok	tapč'i	tap <sup>h</sup> t'ərə	t'auməŋ
/t'anta/ (땡다)	t'augok	t'auji	taudərə	tauməŋ
/p'asta/ (뽕다)	p'ak'ok	p'áč'i	p'at'ərə	p'afiməŋ
/p'sita/ (삿다)	p'ašigok	p'ašiji	p'šidərə	p'ašiməŋ

b. [hijaŋhada ~ ši jaŋhada] (하양다)	[pujaŋhada] (뿌엇다)
[nurəŋhada] (누렁다)	[mulk'əŋhada] (멀경다)
[kamaŋhada] (까망다)	[t'ogiraŋhada] (동그랗다)
[pəlgəŋhada] (빨강다)	[p'ərəŋhada] (파랗다)

用言의 語幹末音이 /h/으로 끝나는 中部語에 대해서 濟州地域語에서는 語幹末音에 /h/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末音 다음에 /Λ/가 삽입되어 音節伸張을 이룬 형태로

8) 金光雄,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에 대한 研究', 濟州大學校 論文集, 제22집(1986), p. 53.

나타나고 있다. 특히 (13, a)의 경우 ‘종다’를 제외하고는 基底形에서조차도 /h/를 갖고 있지 않아 硬音이나 有氣音を 生成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13, a, b)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濟州地域語는 地理的·文化的 與件에 의해 中部語의 영향을 덜 받은 관계로 硬音, 有氣音を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中和作用까지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語幹末子音群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形態素 境界 앞에서도나 單語 境界 앞에서 하나의 子音으로 表面化되는 現象은 國語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母音間에서 세 자음이 發音될 수 없다는 制約과 함께 語頭나 語幹末 位置에서 두 개 이상의 子音이 연속되어 發音될 수 없다는 것이니 즉 國語에서의 子音群單純化라 指稱한다. 이러한 現象은 여러 地域語에 따라 多様な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濟州地域語에서는 體言 語幹末子音群이 母音語尾 앞에서도 모두 實現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 母音語尾 앞에서도 하나의 子音만을 實現하고 있다고 하겠다.

(14) a.		— ㅈ	— to (도)	— i (이)	— t (음)	
	/nək/	( 낫 )	nəkʔ	nəkʔt'o	nəgi	nəgit
	/mök/	( 목 )	mökʔ	mökʔt'o	mogi	mogit
	/kəp/	( 꺾 )	kəpʔ	k'apʔt'o	k'abi	k'abit
b.	/tak/	( 탈 )	takʔ	takʔt'o	tagi	tagit
	/hik/	( 흙 )	hikʔ	hikʔt'o	higi	higit
	/hak/		hakʔ	hakʔt'o	hagi	hagit
	/k'ik/	( 칩 )	k'ikʔ	k'ikʔt'o	k'igi	k'igit
	/jadəp/	( 여덟 )	jadəpʔ	jadəpʔt'o	jadabi	jadabit
	/sərm/	( 삼 )	sərmʔ	səmdo	sami	samit
c.	/ʧisil/	( 기슭 )	ʧifʔt	ʧifʔt'o	ʧifri	ʧifrit

體言의 경우 (14)에서와 같이 基底에 하나의 子音만을 語幹末音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環境에 制約을 받음이 없이 語幹末音에서 子音群單純化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母音語尾가 오는 環境이라도 語幹末音의 연속된 두 子音을 모두 發音하지 못하고 子音群單純化를 거쳐 母音語尾에 연결된다.

(14, a)에서 볼 수 있듯이 /ks/, /ps/의 阻害音끼리의 結合에 있어서는 [+cor]의 資質을 갖는 子音이 脫落되어 /k/, /p/로 單純化되고 있다. 또한 (14, c)의 ‘기슭’을 제외하여 (14, b)에서처럼 /rk/, /rp/, /rm/은 각각 流音이 脫落하여 /k/, /p/, /m/으로 單純化되고 있으며 /r/과 結合하여 形成된 子音群은 調音的인 緊張에 따른 強度가 약한 /r/이 脫落되고 있는 것이다.

濟州地域語에서의 體言 語幹末音의 子音群單純化는 항상 [+cor]인 子音이 脫落되며 [tʰtʰ]

[ʰ]과 같이 [+cor]의 資質을 갖는 子音끼리의 結合에서는 強度가 낮은 流音이 脫落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體言의 子音群單純化에 대한 中和規則은 (15)와 같이 정하여 볼 수 있다.

(15) 體言 語幹末子音群의 單純化 規則

$$\left[ \begin{array}{c} c \\ +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c} c- \\ -c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 \\ c \end{array} \right\}$$

(단 [+cor]인 자음끼리의 결합은 긴장의 강도가 낮은 流音이 탈락)

子音群單純化의 中和現象은 濟州地域語의 用言 語幹末音에서 音節이 伸張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音韻이 脫落된 형태로 나타난다.

(16)		- taŋ (나카)	- č̣i (적)	- koḳ (고)	- aŋ/aŋ (어리/어)
/ač̣ta/	} (없다)	aŋt'əŋ	ač̣'i	ak'oḳ	aŋəŋ
/ač̣ita/		aŋjidaŋ	aŋjič̣i	aŋigoḳ	aŋəŋ
/ən̄h̄ita/	} (있다)	ən̄h̄idaŋ	ən̄h̄ij̄i	ən̄h̄igoḳ	ən̄h̄əŋ
/ač̣'ita/		ač̣'idaŋ	ač̣'ij̄i	ač̣'igoḳ	ač̣'əŋ
/k'nta/	} (끓다)	k'nt'əŋ	k'nt'č̣'i	k'nt'oḳ	k'ntəŋ
/kn̄h̄ita/		kn̄h̄idaŋ	kn̄h̄ij̄i	kn̄h̄igoḳ	kn̄h̄əŋ
/kuč̣h̄anjata/	(귀찮다)	-----	kuč̣h̄anjəj̄i	kuč̣h̄anjəgoḳ	kuč̣h̄anjəŋ
/parka/	} (밟다)	paŋk't'əŋ	paŋk'č̣'i	paŋk'oḳ	paŋgəŋ
/parkita/		paŋgidaŋ	paŋgič̣i	paŋgigoḳ	paŋgəŋ
/nirhta/	} (늪다)	-----	n+ŋc' i	n+ŋk'oḳ	n+ŋgəŋ
/nirhta/		-----	n+ŋj̄i	n+ŋigoḳ	n+ŋgəŋ
/hurhta/	(늪다)	-----	huk'č̣'i	huk'oḳ	hulgəŋ
/sarmta/	} (삼다)	samt'əŋ	samč̣'i	samk'oḳ	salməŋ
/sarmita/		salm+daŋ	salm+ji	sam+goḳ	salməŋ
/kurmta/	} (끓다)	kumt'əŋ	kumč̣'i	kumk'oḳ	kulməŋ
/kurmita/		kulm+daŋ	kulm+ji	kum+goḳ	kulməŋ
/tarmta/	} (뒹다)	-----	tamč̣'i	tamk'oḳ	talməŋ
/tarmita/		-----	tam+ji	tal+goḳ	talməŋ
/parrta/	} (밟다)	paŋr't'əŋ	paŋr'č̣'i	paŋr'oḳ	paŋləŋ
/parrita/		paŋr+daŋ	paŋr+ji	paŋr+goḳ	paŋləŋ
/nərrta/	} (늪다)	-----	nəll+ji	nəll+goḳ	nəlləŋ
/nərrita/		-----	nərr+ji	nərr+goḳ	nəlləŋ



/čarrɪta/	} (춡다)	————	č'Alɪtʃi	č'Alɪgokʷ	č'Alɪaŋ
/č'arɪta/		————	č'Arɪtʃi	č'Arɪgokʷ	č'Alɪaŋ
/hartʰɪta/	} (훤다)	haltʰɪdaŋ	haltʰɪtʃi	haltʰɪgokʷ	haltʰaŋ
/harrɪta/		hallɪdaŋ	hallɪtʃi	hallɪgokʷ	hallaŋ
/hurtʰɪta/	(훤다)	hultʰɪdaŋ	hultʰɪtʃi	hultʰɪgokʷ	hultʰaŋ
/ɪrpʰɪta/	(온다)	ɪlpʰɪdaŋ	ɪlpʰɪtʃi	ɪlpʰɪgokʷ	ɪlpʰaŋ
/ɛtarrɪta/	(애뵤다)	edAlɪdaŋ	edAlɪtʃi	edAlɪgokʷ	edArɪaŋ
/orɪta/	(온다)	————	ollɪtʃi	ollɪgokʷ	oraŋ
/t'orrɪta/	(뵤다)	t'ollɪdaŋ	t'ollɪtʃi	t'ollɪgokʷ	t'ollaŋ
/arrɪta/	(얏다)	allɪdaŋ	allɪtʃi	allɪgokʷ	allaŋ
/korɪta/	(꺠다)	kollɪdaŋ	kollɪtʃi	kollɪgokʷ	kollaŋ
/k'urrɪta/	(꺠다)	kúllɪdaŋ	kúllɪtʃi	kúllɪgokʷ	kúllɪaŋ
/əsta/	} (엷다)	ət'aŋ	əč'i	ək'okʷ	əfəŋ
/ɪsta/		ɪt'aŋ	ič'i	ik'okʷ	ɪfəŋ

中部語의 경우 用言의 語幹末音에 올 수 있는 子音群은 /nč, nh, rk, rm, rp, rtʰ, rp, rh, ps/ 등 모두 9 개로 나타나지만, 濟州地域語에서 이들은 音節伸張이 되지 않으면 子音語尾 앞에서 [n, kʷ, m, p, t]로 發音된다. 따라서 濟州地域語에서 用言의 語幹末音에 나타날 수 있는 子音群單純化는 中和現象을 거쳐 發音될 수 있는 音韻 중에서 /t/만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地域語의 用言 語幹末音의 子音群單純化는 꽤 복잡한 樣相을 띠어 音節伸張된 형태와 音節伸張이 되지 않은 형태의 雙形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같은 子音群을 語幹末音으로 갖는 用言에서도 그 活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子音群들이 音節伸張된 形態로는 모두 [+obst]인 資質을 가진 子音群을 제외한 즉, 子音群에 [+son]의 資質을 갖는 子音이 있다면 一次的으로 音節伸張이 되고 있으며 그 중 [-son, +cor, +strid]인 資質을 갖는 子音 다음에서만 /i/가 삽입되고 그 외에는 /t/가 삽입되고 있음은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子音群의 結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IV. 口 蓋 音 化

濟州地域語에서도 口蓋音化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現象에서 口蓋音化의 制約條件을 통하여 古語의 基底形을 찾아볼 수 있어 더욱 價値가 높다 할 것이다.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는 中部語에서와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l/→ 口蓋音化, /n/→ 口蓋音化, 그리고 /s/→ 口蓋音化는 音聲的 實現으로 나타나는 同一한 音韻의 異音素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共時的인 立場에서보다는 通時的인 立場에서 口蓋音化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筆者가 記述하려는 口蓋音化는 /k/→系 口蓋音化, /t/→系 口蓋音化, /h/→ 口蓋音化에 局限하려 한다.

### 4.1. /k/→系 口蓋音化

/k/→系 口蓋音化는 通時的인 立場에서 여러 地域語에 두루 나타나는 現象이지만 특히 濟州地域語에서 두드러진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는 /k, k<sup>h</sup>, k'/가 [-cons., -back, +high.]의 資質을 갖는 /i/나 /j/의 影響으로 /č, č<sup>h</sup>, č'/로 나타나는 現象을 말한다. 濟州地域語에서 이러한 現象은 體言이나 用言의 語頭에서 아주 활발히 진행된다.

- (17) a. [čir+m] (기름) [čil] (길)  
 [čeu] (기우) [ču] (꿀)  
 [čiregi ~ cirak<sup>h</sup>gi] (걸이) [čak'eŋi] (저드랑이)  
 [čim<sup>h</sup>i ~ čimk'i] (김치) [čip'+m] (기름)  
 [č<sup>h</sup>i] (키, 箕) [čep<sup>h</sup>i] (배피)  
 [čaf+i ~ čaf+i] (기울) [čič<sup>h</sup>im] (기침)
- b. [čjAndida] (견디다) [čiluda] (키우다, 키르다)  
 [čideda] (기대다) [č'ida] (끼다)  
 [čulda ~ čaulda] (기울다) [čilda] (길다)  
 [čidarida ~ čidurida ~ čiduɫɫida] (기다리다)
- c. [činč<sup>h</sup>ne] (긴긴애) [č<sup>h</sup>Amčir+m] (참기름)  
 [čop'č'agori] (겉저코리) [hwač'im] (화김)  
 [čip'al] (깃발)  
 [šorič'il ~ seč'il] (치름길)  
 [ip'č'im] (입김)  
 [swečilme] (쇠김마)

(17, a)의 경우 體言이 語頭에서 口蓋音化를 보이는 用例이며, (17, b)는 用言이 語頭에서 口蓋音化를 보이는 것들인데, 濟州地域語의 語頭 /k/-系 口蓋音化는 他地域語보다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7, c)는 自立形態素끼리 結合하여 하나의 複合語를 이룬 語彙들인데, 여기서는 後行하는 自立形態素의 語頭子音이 口蓋音化 可能的 環境에 있으면 前項 語頭가 아니라도 /k/-系 口蓋音化가 일어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形態素끼리의 結合이 있기 전 이미 口蓋音化를 거쳐 複合語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濟州地域語의 /k/-系 口蓋音化는 漢子語에서도 나타난다.

(18) [ʧəŋkʻi]	(驚氣)	[čũ:]	(橋)
[ʧəŋwəŋ]	(景況)	[čəltʻan]	(決斷)
[čəllon]	(結婚)	[čəŋ:]	(境過)
[čəlkuk]	(結局)	[čəŋčʰi]	(景致)
[čəŋam]	(釋驗)	[čewən]	(絮員)

口蓋音化는 純粹 固有語에 한하여 實現되는 것이 原則이나 (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漢子語의 일부 語彙에서도 口蓋音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漢字語를 사용하는 동안에 話者들이 漢字語라는 사실을 認識하지 못한 데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話者들의 意識 속에서 이미 口蓋音化가 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濟州地域語의 形成은 文字記錄에 의한 教育보다는 口頭에 의한 教育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漢字語 등은 流配된 일부 學者들에 의해서 아주 局限된 島民에게 教育되고 그들에 의한 口頭傳播의 過程 때문에 漢字語의 쓰임은 常用語에 局限되었을 뿐만 아니라 漢字語라는 意味도 不分明 했으리라 여겨진다.

(18)에 열거한 漢字語들은 그레도 다른 漢字語들보다는 話者들에게 관심있는 語彙들이고 따라서 漢字語의 口蓋音化라는 特殊한 境遇로 보더라도 口蓋音化가 可能的 環境에서 同化되는 일반적인 범주로 처리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漢字語의 口蓋音化는 隨意的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생성하기는 어려운 듯하나 純粹語에서의 /k/-系 口蓋音化가 /i/나 /j/ 앞에서 변하는 環境 條件을 가지는 반면, 漢字語의 /k/-系 口蓋音化는 /j/ 앞에서만 可能하며 또 그 複母音은 單母音化 過程을 거치고 있다.

(19) a.	[kwegij]	(고기)	
	[egi]	(아기)	
	[tʰwekʻi]	(토끼)	
	[čwekʻe]	(조끼)	
	[čʻikʻegi ~ čʻikʻtregi]	(지끼기)	
	[čəmkʻuregi]	(삼푸러기)	
b.	[mogij]	[*močʻi]	(모기)
	[čogij]	[*čočʻi]	(조기)

[p<sup>h</sup>egi]            [ \*p<sup>h</sup>eji ]            (포기)

모기 밑에머 너희 차피로 <적九 9>

모기와 포리를 <五倫 - 58>

꽃피과 <同文解上 45>

c. [čiregi ~ k+regi]            (가너기, 鴻)

[čire]                            (키, 身長)

[čit<sup>h</sup>i]                            (기틀)

[čiuŋ]                            (기운)

늘근 기러기논 <杜重八 21>

리 검도 크도 아너호고 <月 - 26>

복의 경쇠 아니오 화의 기틀이니 <閑中 p.36>

갈숨과 기운 내음애 <小언 36>

d. [i:di ~ jodi:]                    (여기)

[čod:]                            (저기)

[k+di]                            (거기)

내 어리 갈 일호니 後에 예 어두리다 <南明上 36>

이상 (19)에 열거된 語彙들은 口蓋音化가 可能한 環境에<sup>9)</sup> 있으면서도 口蓋音化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類形들이다. 이는 /k/-系 口蓋音化가 語頭에서만 可能한 條件과 실상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通時的인 觀點에서 變化를 주는 /i/가 語源的으로 純粹한 /i/가 아닐 때에는 口蓋音化의 制約條件이 된다. (19, a)는 語頭的 位置가 아닌 곳에서 口蓋音化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例다. 이 때의 /i/ 母音은 口蓋音化를 위한 同化主로서보다는 /i/ 母音 逆行同化和를 일으키는 役割 遂行이 큰 것이다. 國語에서 /i/ 母音 逆行同化가 일어난 것은 18세기와 19세기 交替期로 把握되고 있다. 中部語에서는 대체로 單一形態素 內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濟州地域語에서는 形態素 境界에서까지 /i/ 母音 逆行同化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음은 周知할 만하다.

그러나 (19, b)는 口蓋音化도, /i/ 母音 逆行同化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경우다. 이는 語頭的 位置가 아닌 곳에서 口蓋音化가 일어나지 못하는 制約條件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i/ 母音 逆行同化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는 通時的인 觀點에서 變化를 주는 /i/가 語源的으로 純粹한 /i/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同化主의 位置에 있는 /i/가 純粹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i:/였는데<sup>10)</sup> 通時的으로 일정한 音韻過程에 의하여 /i/로 實現될 것이다. 이러

9) 여기에서 口蓋音化가 可能한 環境이라는 것은 'i' 母音에 限定하는데 이는 通時的으로 單母音化 過程을 거쳤기 때문이다.

10) /i/와 /i:/는 원래 辨別的인 機能을 갖고 있었는데 現代語에 와서 모두 /i/로 統合되었다.

한 單母音化가 이루어졌던 時期는 /ɨj/ 複母音이 불안정하게 된 19세기 이후의 사실로 추측된다. 이는 적어도 單一形態所 內에서 이미 /i/—系 口蓋音化가 終熄되었던 18세기 ‘어되’, ‘잔되’, ‘버되—’, ‘더되—’ 등의 /ɨj/, /ɨʰj/ 音節이 /i/, /iʰ/로 변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口蓋音化를 經驗하지 못했으며 그 후 오늘날과 같이 單母音化하여 ‘어디’ ‘잔디’ ‘버되—’ ‘더되—’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서 증명된다. 따라서 /k/—系 口蓋音化는 語頭가 아닌 곳에서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못하는 대신에 /i/ 母音 逆行同化를 遂行한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게 되며 口蓋音化가 可能한 環境에서의 /i/가 通時的으로 純粹한 /i/ 母音이 아닐 경우<sup>11)</sup>에는 口蓋音化는 물론 /i/ 母音 逆行同化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提起될 수 있는 語彙들이 바로 (19, c)들이다. 여기서는 純粹 /i/ 母音이 아니었던 音韻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口蓋音化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濟州地域語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現象으로 複母音의 범주에서 벗어나 形態音韻論的 制約에서 점진적으로 脫皮하려는 例이다.<sup>12)</sup> ‘기러기’의 경우 [čiregi—kiregi]로 發音되는 것은 이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인데, 즉 口蓋音化가 可能한 語頭的 /ki/는 通時的으로 /kij/에서 비롯된 것이나 語頭에서 口蓋音化함을 보여 口蓋音化의 進進적인 發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語末의 /ki/는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는 대신으로 語末位置에서 /i/母音 逆行同化를 遂行하고 있다.

(19, d)에 보여주는 語彙들은 오히려 15세기에 ‘處(장소)’를 나타내는 不完全名詞 ‘디’가 冠形語 ‘이, 저, 그’에 연결되어 指示代名詞로 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濟州地域語의 研究 價値를 더해 주고 있다.

被動·使役 接辭가 語尾 사이에 挿入되어 口蓋環境을 갖는다 하여도 口蓋音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20) a.	/k'ak' + i + ta/	>	[k'ek'ida]	(꿈이다)
	/mæk + i + ta/	>	[megida]	(먹이다)
	/mæk + hi + ta/	>	[mek <sup>h</sup> ida]	(먹히다)
	/mak + hi + ta/	>	[mek <sup>h</sup> ida]	(막히다)
	/pak + hi + ta/	>	[pek <sup>h</sup> ida]	(박히다)
	/sək + hi + ta/	>	[segida]	(씩히다)
	/mat <sup>h</sup> + ki + ta/	>	[mek'ida]	(말기다)
	/om + ki + ta/	>	[wəŋgida]	(옮기다)
	/pəŋ + ki + ta/	>	[pek'ida]	(벗기다)
	/ʔ'or <sup>h</sup> + ki + ta/	>	[č'wek'ida]	(뚫기다)

허웅 『國語音韻學』 正音社(1982), pp.444~445.

키(「크-」의 派生 副詞) : 크(「크-」의 派生名詞, 身長)

기러(副詞) : 기러(名詞), 기러(副詞) : 기러(名詞)

11) 語頭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金光雄,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에 대한 一研究’, 『제주대학 논문집 제20집』(1985), p.91.

b. /us - či - ta/	>	[uʒʹida]	(웃기다)
/kam - či - ta/	>	[kamčʹida ~ kamʸida]	(감기다)
/sum - či - ta/	>	[sumčʹida ~ sujkʰida]	(숨기다)
/kum - či - ta/	>	[kumčʹida]	(줍기다)
c. /kup - či - ta/	>	[kupʔčʹida]	(줍히다)
/nup - či - ta/	>	[nukʔčʹida]	(늪히다)
/əup - či - ta/	>	[əupʔčʹida]	(엷히다)

被動・使役 接辭 {-i-나 {-hi-가 語幹末子音 /k/, /k'/과 結合하여 [ki, kʰi, ki]로 發音되거나 아니면 使役 接辭 {-ki-가 插入되어 口蓋音化가 可能的 環境을 갖는다 고 하여도 일차적으로 語頭가 아닌 位置이기 때문에 口蓋音化를 거치지 않는 대신에 (19, a)에서처럼 /i/母音 逆行同化를 하게 된다. (20, a)는 이를 증명해 준다.

만약, (20, b)에서 나타나는 [čʹi]는 口蓋音化現象의 結果라기보다는 濟州地域語의 특이한 形態의 使役 接辭 {-hi-가 있어서 그것이 硬音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 b)에서 使役接辭 {-ki-가 口蓋音化하여 [čʹi]가 되고 이것이 硬音化를 거치면서 [čʹi]로 발음된 것이라면 (20, c)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20, c)에서 보듯이 /p/을 末音으로 갖는 用言의 語幹에서 使役接辭 {-ki-가 붙어서 [čʹi]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 濟州地域語에서의 /k/-系 口蓋音化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口蓋音化가 可能的 語頭的 /i/ 母音은 通時的으로 純粹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隨意的으로 口蓋音化를 일으키고 있었다. 반면 語中の /i/ 母音은 口蓋音化를 일으키기보다는 앞 音節에 /i/ 母音 逆行同化를 遂行하는 役割이 크기 때문에 口蓋音化와 /i/ 母音 逆行同化는 /i/ 母音의 位置에서 相補的으로 일어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地域語의 /k/-系 口蓋音化는 다음과 같이 規則化할 수 있겠다.

(21) /k/-系 口蓋音化

$$\left[ \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hig} \\ + \text{ back}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 \text{ back} \right] / \# \rightarrow \left[ \begin{array}{l} i \\ j \end{array} \right]$$

#### 4.2. /t/-系 口蓋音化

18세기 國語에 口蓋音化가 일어나서 /t/, /tʰ/이 母音 /i/, /j/ 앞에서 각기 /č/./ /čʰ/으로 變換 것으로 나타난다. 通時的으로 口蓋音化는 英・正 時代, 즉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中世語에서 口蓋音化 現象은 完了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顯宗 11년(1669)에 나온

「老乞大諺解」에는 口蓋音化現象이 많이 보이지 않으나, 正祖 19년(1795)에 나온 「重刊老乞大諺解」에는 거의 완전히 나타나고 있다.<sup>13)</sup>

- (22) 그리면 그상 조타(豆豆塔) <上·7>  
 내 저(더) 아는 사람이 <上·8>  
 민일(חד타가) 쯔 지(디)나사면 <上·9>  
저(더)라 가 비우 저기 일러도 조호(豆호)나 <上·9>  
 뒤호르 됴에 다웃지(디) 뭇하러나 <上·9>

이상에서 보여주는 /t/—系 口蓋音化는 單一形態素에서 일찌기 完了되어 現代國語에서는 形態素 境界에서만 實現되고 있다. 15세기 中世國語에서는 單一形態素 /t/, /t<sup>h</sup>/가 /i/, /j/와 연결이 가능하였는데, 18세기 무렵에 와서 이러한 연결은 /t/, /t<sup>h</sup>/을 /ṭ/, /ṭ<sup>h</sup>/으로 바뀌는 音韻變化를 經驗하게 되었다. 이것은 通時的인 /t/—系 口蓋音化로 디다→지다(落), 티다→치다(打), 모닐다→모질다(惡), 농다→좋다(好) 등의 例로 確認할 수 있다. 따라서 單一形態素 內에서 /t/—系 口蓋音化는 일찌기 完了됨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音韻變化의 環境이 바뀌어 形態素 境界에 대해서만 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濟州地域語에서도 일반적인 口蓋音化를 거치고 있으나 일부 南部 地域語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現象을 보이고 있다.

- (23) a. [ka<sup>h</sup>i ~ ka<sup>h</sup>'i] (같이)  
 [pu<sup>h</sup>ida ~ pu<sup>h</sup>'ida] (붙어나)  
 [s'webu<sup>h</sup>'i] (시분이)  
 [hu<sup>h</sup>ida] (훑어다)  
 [pu<sup>h</sup>'ə] (붙여)  
 [ma<sup>h</sup>'i] (말이, 뉘)
- b.
- |          |      | -#      | -i(이)   | -il(을)    | -iro(으로)   | -e <sup>14)</sup> (에) |
|----------|------|---------|---------|-----------|------------|-----------------------|
| /kəs/    | (겉)  | kəṭ    | kəši    | kəf̣il    | kəf̣iro    | kəfe                  |
| /pes/    | (별)  | peṭ    | peši    | pef̣il    | pef̣iro    | peṭ'i                |
| /pek'əʃ/ | (바깥) | pek'əṭ | pek'əši | pek'əf̣il | pek'əf̣iro | pek'əṭ'i             |
| /səʃ/    | (솥)  | səṭ    | səši    | səf̣il    | səf̣iro    | səṭ'i                |

13) 金亨奎, 『國語史概要』—潮閣(1975), p.154.

李基文, 金鎮宇, 李相境, 『國語音韻論』, 學研社(1984).

14) 處格에 나타나는 語尾 /-e/는 濟州地域語의 隨意的으로 15세기 形態인 /-ti/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은 音韻論의 區別이 확실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세째, 15세기 子音同化에서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同化되는 現象을 볼 수 있으나 'ㅅ'과 'ㄴ' 앞에서 아무런 同化를 보여주지 않는데 이러한 差異는 'ㄷ'과 'ㅅ'이 音韻論의 區別으로 달랐음을 證明한다. (둔니다(行), 잇느니(有), 낫나리(個))

네째, 朝鮮館譯語의 漢字에 의한 表記로 15세기 正音 文獻의 語末音 'ㅅ'은 모든 '思'字로 表記되고 있으나 'ㄷ'은 제대로 표기되지 못하였다. (花果思-꽃, 涉思-갯)

다섯째, 老朴集覽의 '禿禿磨思'에 대한 註에서는 '思'와 終聲 'ㅅ'의 對當關係를 보여주며 또 發音을 느리게 하면 '食(시)'가 되고 빠르게 하면 '思(스)'가 된다고 하여 後者의 發音이 아마도 內破的인 [s]였음을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以上の 論述은 語幹末子音 /t<sup>h</sup>/이 母音 앞에서 [s]로 實現되는 濟州地域語의 特征적인 現象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資料가 된다. 이것은 또한 (23,c)의 /t<sup>h</sup>/가 [s]로 實現되지 않고 그대로 [t<sup>h</sup>]와 口蓋音化된 [ɕ<sup>h</sup>]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說明할 수 있겠다. (23,b)가 (24,a)에서와 같이 古語에서 /s/로 나타나는 반면 (23,c)는 (24,b)에서처럼 /s/로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t<sup>h</sup>/로 그 形態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用言의 活用에서는 母音語尾에 의한 경우라도 [s]로 實現되지 않는데 이는 語尾 또는 接辭가 插入되어 이미 하나의 完어된 單語를 形成했기 때문에 中部語의 口蓋音化를 그대로 適用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t/-系 口蓋音化는 濟州地域에서 다음과 같이 規則化할 수 있다.

(25) 口蓋音化 規則

$$\left\{ \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cor} \\ + \text{ ant} \\ - \text{ con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 \text{ ant} \right] / + \left\{ \begin{array}{l} i \\ j \end{array} \right\}$$

#### 4.3. /h/ 口蓋音化

濟州地域語에서의 /h/의 口蓋音化로 實現되는 /s/ 音韻은 齒莖의 內部와 前硬口蓋의 아주 가까운 부분에서 나는 硬口蓋 磨擦音으로 /h/→/s/는 분명하게 口蓋音化의 範疇에 넣을 수 있다. /h/ 口蓋音化도 語頭의 位置에서 /i/나 /j/ 母音 앞에서 /s/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26) a.	[šim]	(힘)	[šimk'atʰ]	(힘껏)
	[šit'ikʷ]	(히뚝)	[šimš'ul]	(힘술)
	[sug]	(흥)	[šugne]	(흥내)
	[se]	(히)	[sep'an+i]	(엿바늘)
	[sagk'tʰada]	(향긋하다)		
b.	[hida ~ šida]	(히다)	[šimihada]	(희미하다)
	[šit'oun]	(희뚝)	[šit'ik-šit'ikʷ]	(희뚝희뚝)
	[šianan]	(희완완)	[šingon]	(원공)
	[šinnebi]	(희나비)		
c.	[soda]	(쇄다)	[šidur+da]	(휘두르다)
	[šijibuʃi]	(호지부지)	[šinaʎida]	(휘날리다)

(26)의 語彙들은 純粹한 固有語에서 口蓋音化를 보여주는 用例들이다. (25, a)는 /i/나 /j/ 앞에서 /h/가 /s/로의 口蓋音化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j/ 앞에서의 口蓋音化는 반드시 뒤에 單母音化를 거친다. 이것은 /k/-系 口蓋音化와 同一한 音韻過程을 보이는데 (26, b)에서는 그 基底母音이 /i/나 /ɛj/로서, 通時的인 觀點에서 純粹한 /i/母音이 아닐 때도 물론 隨意的으로 口蓋音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濟州地域語의 前進의인 口蓋音化를 說明해준과 동시에 (26, c)에서와 같이 /i/母音으로 單母音化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서 口蓋音化를 生成하는 用例들도 있음이 특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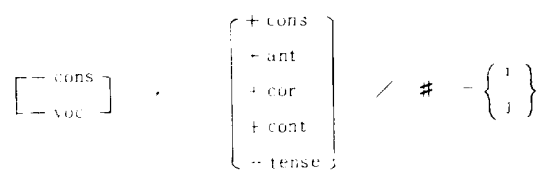
/h/ 口蓋音化는 漢字語에서도 隨意的으로 일어나고 있다.

(27)	[səŋ]	(兄)	[sagk'aʃi ~ seŋk'o]	(香)
	[sagp'ul]	(香火-향불)	[sag'tʰo]	(鄉土)
	sodo]	(孝道)	[soʃe]	(孝子)
	[sok'wa]	(効果)	[sobu]	(孝婦)
	[suga]	(休暇)	[suʃi]	(休紙)
	[sujaŋ]	(休養)	[suŋgi]	(凶器)
	[suŋjəŋ]	(凶年)	[suŋəkʷ]	(凶惡)

위의 漢字語들은 (26, b, c)와는 달리 口蓋音化가 확대되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j/ 앞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s/로의 口蓋音化 形成時 반드시 후에 單母音化 過程을 거치고 있어 /k/-系 口蓋音化에서 論議된 漢字語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는 訓蒙子會에서 '선비→선비', '쇼→쇼' 등으로 변했듯이 '향불→상불→상불' 등의 過程에서 이미 口蓋音化가 이루어진 歷史的인 事實로 볼 수 있다. 즉 /h/가 /i/ 앞에서 [š]로 口蓋音化된 후 /j/가 다시 脫落하여 [š]는 [s]로 實現되었다고 보겠다.

/h/ 口蓋音化는 거의 隨意的인 現象이지만 濟州地域語에서는 다음 (28)과 같은 規則을 내릴 수 있겠다.

(28) /h/ 口蓋音化 (隨意的)



## V. 硬音化現象

### 5.1. 語頭硬音化

語頭硬音化는 通時的인 音韻變化的 結果로 中世語에서 ㅂ-系 合用文字와 ㅅ-系 合用文字, 그리고 各自並書文字가 오늘날 語頭에서 硬音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또한 共時的인 面에서도 일부 地域에서 語頭硬音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現象은 주로 地域語에서 閉鎖音, 磨擦音, 破擦音에 [+tense]가 가해지면서 隨意的으로 實現되고 있고 中部 地域語에서보다 南部 地域語에서 比較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남은 統計에 의해 發表된 바 있다.<sup>16)</sup>

濟州地域語의 語頭硬音化는 /p/→/p'/, /t/→/t'/, /k/→/k'/, /ç/→/ç'/, /s/→/s'/의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다.

(29) a. /p/ → /p'/'

[p'iʝida]	(빻다)	[p'ufəʝida ~ p'ufəʝida]	(부치치다)
[p'ont'ida]	(본뜨다)	[p'enʝilp'enʝil]	(만질만질)
[p'irəŋʝil]	(비리질)		

b. /t/ → /t'/'

[t'engida ~ tɛgida]	(당기다)	[t'allinda]	(달인다)
[t'urənedə]	(둘러매다)	[t'ong+rəghada]	(동그랗다)
[t'ak'ida]	(닭다)	[t'ofi ~ t'afi]	(다치)

c. /k/ → /k'/'

[k'ombo]	(곰보)	[k'ufəkʰ]	(구석)	[k'ugt'on]	(구름)
[k'očhi]	(고추)	[k'agneŋi]			(강명리)
[k'əi]	(결-꽃에서)	[k'u]əgomul ~ k'u]uŋmul]			(구정물)
[k'adikʰ ~ k'at'ikʰ]	(가득)	[k'aši]			(가지)
[k'arak'č'i]	(카락적)	[k'ək'uɬo]			(저꾸로)
[k'analda ~ k'enalda]	(가늘다)	[k'ugida]			(구기다)

16) 康允浩, “國語方言에 있어서의 語頭硬音化 어휘의 分布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20, 국어국문학회 (1957), pp. 25~26.

d. /č/ → /č'/			
[č'ikʷ]	(질)	[č'irəŋne]	(지린내)
[č'ak t'egi]	(작대기)	[č'wek'e ~ č'ok'e]	(제기)
[č'allida ~ č'arida]	(자르다)	[č'ak't'a]	(작다)
[č'ok'orak'hada]	(자크맏다)		

e. /s/ → /s'/			
[s'wenegi]	(소나기)	[s'uk'arakʷ ~ s'uk'al]	(순가락)
[s'ibumo]	(시부모)	[s'i'jipʷ]	(시집)
[s'ilda ~ s'olda]	(슬다-좀 따위가)	[s'iwənhada ~ s'anəhada]	(시원하다)
[s'amt'a ~ s'almida]	(삶다)	[s'əŋneda]	(싱내다)

濟州地域語의 語頭硬音化는 특이하게 발달되어 듣기 거북하고 날카로운 硬音化로 보이기도 하는 生活에 밀접한 語彙들에서 發生하고 있고, 또한 濟州島라는 地理的·文化的 條件 때문에 특이한 現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他地域語에서 硬音으로 發音되는 것들도 간혹 있으나 [t'ubu](우부), [p'igari](병아리), [k'a'jukʷ](가죽) 등과 같은 語彙는 濟州地域語에서 硬音化되지 않는 반면 [s'ibumo](시부모) [c'arida ~ c'allida](자르다) [k'analda ~ k'enilda](가늘다) 등의 語彙가 隨意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語頭硬音化의 發生은 단순한 音韻論的인 側面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形態論的 내지는 意味論的인 側面과도 관련이 있는 것<sup>17)</sup>으로 보이기 때문에 濟州地域語에서의 語頭硬音化도 音韻論的으로 일정한 規則을 生成해 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몇 가지 특징을 抽出해낸다면 첫째로는, 語頭硬音으로 發音되는 대부분의 語彙들이 주로 2音節語 이상이라는 것이다. [c'ikʷ](질), [k'apʷ](값), [k'al](걸) [s'we](쇠) 등의 單音節語에서도 語頭硬音화를 거치고 있지만 이는 거의 例外的인 語彙들이고, 오히려 [s'ogopʷ](속), [t'hərakʷ ~ k'ərakʷ](털) 등에서 單音節語가 語頭硬音화를 거치면서 音節伸張을 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둘째로는, 硬音으로 발음되는 첫 音節이 대체로 母音과 끝나거나 /m, n, r, ŋ/ 등의 子音으로 끝나고 있어 [+son] 資質을 갖는 음을 끝으로 하는 첫 音節에서는 語頭硬音화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例外로 볼 수 있는 '빚다' '타다' 등도 濟州地域語에서는 音節伸張을 일으켜 각각 [p'i'ida] [t'ak'ida]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결국 語頭硬音을 일으키는 첫 音節이 母音으로 끝나 [+son]의 資質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sutkarak/ (순가락)의 받침 /t/

17)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會 (1985), p.53참조.

激烈한 行動이 可能한 動作動詞들의 語頭에서 硬音화를 겪는 語彙들이 中世語에 나타난다. 中世語의 ] '빙-(慘)' '비비-(捏)', '두드리-(槌)' 등이 '췌-' '세익-' '뚜드리-'로 된 것은 印象의 價値가 激烈한 行動의 表現에 이용된 것이다.

은 다음 音節의 /k/를 [k']으로 변하게 한 다음 同序列子音脫落規則<sup>18)</sup>에 의하여 [s'uk'arak]로 實現되는 것이다. 다만 첫 音節의 받침이 [-son] 資質에서 語頭硬音을 거치는 것으로는 [c'ik'](질) [c'ak't'egi] (작대기), [c'ak't'a] (작다) 등 아주 소수의 語彙에 불과하다.

(30) a. [kamagi ~ kaməgi] (까마리)	[kəp'ɪt'egi ~ kək'ɛ'əkɪ] (껍데기)
[kəjʊk ~ kəp'ɛ'ɪl] (껍질)	[kojʌŋ ~ kətɪ] (꽃)
[kək'ɛ'ɪda] (꼬집다)	[kəp'ɪt'a] (꼽다)
[kweda] (끓다)	[kəgida ~ kək'ɪt'a] (겹다)
[kamaŋhada] (까망타)	[kafirakɪ] (까끄라기)
[tat'a] (튀다)	[ʎot'a ~ ʎoɕ'hida] (쫓다)
[pɪlɪ] (뿌리)	[sɔlɔri] (샬로리)
[səkɪ ~ səkɪ] (쑥)	[sot'a] (쏟다)
[ʃiɕ'hida] (썰다)	[sək'ɪt'a] (씩다)
[ʃilgɪ ~ ʃ'ɪlgeɪ] (썰개)	

b. 다섯 가마귀 (고 <용 86)

- 거서리 달하 <教方下 87>
- 나뭇 김질 조처 먹다가 <三强患 14>
- 고 김질 갖거 물헌에 호코 <능九 47>
- 고 보며 뭇트니 아니호며 <月十七 53>
- 귀미치 귀야낸이 <海東 p.69>
- 꽃 잇는 파홀 존가 가시다가 <月 - 9>
- 가라케 시거 <痘經 27>
- 근스라기 업시호코 <教要 7>
- 엇더 미쳐 드르노 <능四 67>
- 衆賊 쫓거늘 <용 36>
- 물휘 기른 남근 <용 2>
- 祭사 스래 더를 두라 <家訓 - 22>
- 蘭草와 뿔의 달음이 쇼문 엇더오 <內序 3>
- 낫맛 수시에 바고니 들 소든니 <杜초十六 71>
- 시스며 갖곤 거시 사르 두렷도다 <杜초十六 71>
- 창죽물 석세 흘가 <教方下 77>
- 臍은 뿔세라 <金삼 60>

18) 註 7) 참조.

(30, a)에 열거된 語彙들은 語頭硬音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中部語에서 發音되는 것들이 濟州地域語에서는 平音으로 나타나는 隨意的인 交替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잡한 都市文明의 影響을 덜 받은 島民의 言語心理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30, b)와 연결시켜 본다면 15세기 平音의 音價가 濟州地域語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일종의 言語變遷의 保守性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濟州地域語의 語頭硬音化는 平音과 硬音의 隨意的인 交替를 보이고 있는데 硬音化란 것이 社會生活이 날로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緊張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면 濟州地域語의 硬音化도 더욱 강렬해지리라 본다.

## 5.2. 語中硬音化

語中硬音化는 共時的인 觀點에서 일반적인 規則性을 가진 同化作用으로 濟州地域語의 語中硬音化도 일반적인 規則을 따르며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筆者는 休止, 形態素 境界, 複合語 境界와 관련시켜 先行하는 音節의 終聲이 阻害音인 경우, 鼻音·流音인 경우에 있어서 後行하는 阻害音이 硬音化되는 現象을 考察하고자 한다.

阻害音 다음에서의 阻害音이 硬音化하는 規則은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必須的인 音韻現象으로 論議되어 왔다. 즉  $-C_1C_2-$ 의 구조에서  $C_1, C_2$ 가 모두 [+obst]의 資質을 가지면 먼저 中和規則을 기친 다음 그 側面效果로 [-tense] 資質이 [+tense]로 나타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들이다.

(31) a.	[əlləkʰsʰwe]	(얼룩소)	[okʰʌʃim]	(옷감)
	[pičʌrakʰ]	(빚자루)	[ipʰau ~ ipʰwi]	(입가)
	[aʌʌjəkʰčʰipʰ]	(아랫집)	[pʰʌčʰukʰi]	(관속)
b.	[kokʰsʰəkʰwŋ]	(곡식과)	[jʌpʰtʰo]	(열도)
	[pʰʌpʰoda]	(팔보다)	[nakʰwŋ]	(낮과)
	[jəkʰwŋ]	(엿과)	[pekʰətʰo]	(바깥도)
	[takʰtʰo]	(담도)	[sʰəpʰoda]	(알보다)
c.	[mʌtʰaŋ ~ mʌʃidaŋ]	(땀다가)	[kəgiʃi]	(엮지)
	[təkʰigok ~ təpʰigok]	(덜고)	[nakʰiʃi]	(낙지)
	[həkʰiʃi ~ səkʰiʃi]	(섬지)	[sikʰiʃi]	(실지)
	[pakʰida ~ patʰida]	(빨다)	[tʰidaŋ]	(들다가)
	[ciʌdaŋ]	(길다가)		

濟州地域語에서의 阻害音 -C<sub>1</sub>C<sub>2</sub>-의 結合은 體言과 用言의 경우 달리 나타난다. (31,a,b)는 體言과 관련된 用例들인데 單一形態素, 複合語 더 나아가 體言의 曲用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硬音化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32) 硬音化規則

$$\begin{bmatrix} + \text{obst} \\ - \text{tense}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 \text{tense} \\ - \text{asp} \end{bmatrix} / [+ \text{obst}]_{\mathbf{N}(+)} \longrightarrow$$

그런데 이 硬音化規則이 實現되는 때는 몇 개의 부수적인 規則의 適用이 並行되어야 한다.

(33) /p <sup>h</sup> At <sup>h</sup> šuk/ (관죽)	/tark + to/ (담도)	基底形
p <sup>h</sup> At <sup>h</sup> šuk <sup>h</sup>	tArk <sup>h</sup> to	中和規則 (10)
-----	tAk <sup>h</sup> t'o	子音群單純化規則 (15)
p <sup>h</sup> At'šuk <sup>h</sup>	tAk <sup>h</sup> t'ŋ'o	硬音化規則 (32)
p <sup>h</sup> Ač'uk <sup>h</sup>	-----	同序列子音脫落規則
[p <sup>h</sup> Ač'uk <sup>h</sup> ]	[tAk <sup>h</sup> t'ŋ'o]	表面形

阻害音 다음에서의 硬音化現象은 (33)에서 보듯이 中和規則을 겪은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후에 여러 音韻現象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用言의 活用에 있어서는 體言의 曲用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31,c)는 이를 증명해 주는데, 用言의 語幹末音이 阻害音인 경우 阻害音を 頭音으로 갖는 語尾기 오더라도 硬音化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母音을 插入하여 音節伸張을 일으키므로써 硬音化 環境을 회피하고 있다. '디' 不規則用言인 '듣다' '길다' 등은 [tilda], [šilda] 등 規則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간혹 -C<sub>1</sub>C<sub>2</sub>-에서 C<sub>2</sub>가 硬音으로 發音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教育을 받은 젊은 世代의 영향인 듯하며 高齡일수록 母音을 插入시켜 音節伸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鼻音 /m, n, ŋ/는 다음에서의 硬音化現象도 많은 隨意的인 交替를 보인다.

(34) a. [nũč'it]	(눈갈)	[čAn:č'ət]	(삼갈)
[sont'ɨt'egɨ]	(순등)	[nũk'ɨp'č'egɨ]	(순등)
[šomp'əreŋɨ]	(좁말레)	[pArɨms'at]	(마암갈)
[pamč'it]	(팜갈)	[nũp'at]	(눈말)
[sɛŋk'aʔ: ~ sɛŋk'ɨ]	(상가악)	[sɛŋk'Arakʔ]	(순가악)
[mũnk'ab]	(문간)	[sɛŋč'egɨ]	(상갈)



b. [ʃanʃori ~ ʃandanɪ]	(간소리)	[ne+nʃe]	(냄새)
[sɪnbəl]	(신발)	[momʃo]	(몸소)
[sɪnʃo]	(손수)	[nangan]	(난간)
[hʃəŋgwaŋɪŋ]	(형광등)		

c.		~ pota (보다)	- to (도)	- kwaŋ (과)
/naŋ/	(나무)	naŋboda	naŋdo	naŋgwaŋ
/ʃam/	(잠)	ʃamboda	ʃamdo	ʃamgwaŋ
/səŋ/	(형)	səŋboda	səŋdo	səŋgwaŋ
/masin/	(마음)	maʃimboda	maʃimdo	maʃimgwaŋ
/kusin/	(귀신)	kuʃimboda	kuʃimdo	kuʃimgwaŋ

鼻音 다음에사의 硬音化는 매우 隨意的으로 나타난다. (34, a)는 硬音化를 일으키는 반면 (34, b)는 硬音化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硬音化를 보이는 (34, a)에서는 複合語가 대부분으로 通時的인 面에서 15세기 사이시옷 /s/가 介在되었다가 뒤따르는 沮害音을 硬音化시켜 그 자리는 達落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事實은 龍飛御天歌와 訓民正音 諺解에서 '니, 드, 비, 병, 등' 등이 사이시옷으로 쓰인 사실을 들 수 있다.<sup>19)</sup> 사이시옷은 先行語의 末音의 內破化와 後行語의 頭音(니, 드, 비, 지, 시 등)의 硬音化를 나타낸 것으로 후에 '스'이 사이시옷으로 선택되어 內破化는 포기하고 硬音化만을 나타냈음을 암시하고 있다. 例外的인 存在로 [sarimʃon](사람손) [pejəmdɛgari](뽕대가리) 등의 複合語에서 볼 수 있는 非硬音化는 先行語가 [+animate]를 지칭하는 말일 경우에, 또 複合語를 구성하고 있는 원래의 말 사이에 主從關係가 없는 並列 複合語에서 일어난다는 意味論的 考察에서 보면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複合語 境界의 鼻音 다음에사의 硬音化는 매우 隨意的이라 하겠다.

덧붙여 (34, b)에서 알려진 單一語나 漢字語 등에서는 硬音化現象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특히 (34, c)에서와 같이 體言의 曲用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用言의 活用에서는 體言과는 색다른 音韻現象을 보여준다.

(35) a. [samtʰaŋ ~ sʌtmidaŋ]	(삼다가)
[kumkʰokʰ ~ kulmɪgokʰ]	(꿈고)
[sɪnʃi ~ sɪnʃi]	(신지)
[kamtʰaŋ ~ kamɪdaŋ]	(감다가)
[akʰokʰ ~ aʃigokʰ]	(악고)

19)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會 (1985), p. 51 참조.  
龍飛語天歌에 '신대(善竹 1.47), 뒷심술(北泉洞 2.32)  
訓民正音諺解에 '니소리(齒音)' '허소리(舌音)'으로 쓰였음.

b. /an + či + ta/ > [anč'ida]	(안기다)
/kam + či + ta/ > [kamč'ida]	(감기다-머리 싸위를)
/sum + či + ta/ > [sunč'ida ~ kapč'ida]	(숨기다)
/sin + či + ta/ > [sinč'ida]	(실기다)
/kurm + či + ta/ > [kumč'ida]	(굶기다)

濟州地域語에서 語幹末音에 鼻音을 갖는 用言은 그 活用에 있어(35.a)가 보여주듯이 비교적 硬音化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35.b)처럼 用言의 硬音化는 接辭 /-ki-/가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中部語에서나 他地域語에서의 派生接辭 /-ki-/와의 연결은 거의 硬音化되지 않으면서 軟音 [k<sup>h</sup>i]로 나타날 뿐이었지만 濟州地域語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硬音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특이하다. 다만 派生接辭 /-ki-/의 연결이 [či]로 實現됨을 알기 위해서는 蓋音化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濟州地域語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či-/가 先行하는 用言의 語幹末音인 阻害音 다음에서 硬音化되어 [č'i]가 된 것이다.

따라서 鼻音을 語幹末音으로 갖는 用言에서는 形態素 境界에서 항상 硬音化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規則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36) 硬音化規則

$$\begin{bmatrix} \text{---} \\ \text{---} \text{ cons} \\ \text{---} \\ \text{---} \text{ son}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text{---} \text{ tense} \\ \text{---} \\ \text{---} \\ \text{---} \text{ asp} \end{bmatrix} \nearrow \left[ \text{F nasai} \right]_{\text{V.A. stem}} + \text{---}$$

流音 다음에서의 硬音化에 관해서는 거의 他地域語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37) a. [talp'itɔ]	(탈빳)	[caʃitp'arim]	(척을바람)
[malɔs'ori]	(말소리)	[palč'it]	(밭길)
[ult'am]	(울타리)	[pulč'ap <sup>h</sup> ari ~ puljap <sup>h</sup> ari]	(불장난)
b. [pəit'əŋ]	(發動)	[pəlgjən]	(發見)
[niłč'u]	(密酒)	[milgə]	(密告)
[sils'in]	(失神)	[silgəm]	(實感)
[mɔlč'ə]	(物資)	[malgən]	(物件)
[səit'ikʲ]	(說得)	[səlbokʲ]	(說服)
c. [talgwaj]	(탈과)	[caʃido]	(척을도)
[malboda]	(밭보다)	[palčido]	(밭길도)

d. [tʰiŋgokʰ]	(듣고)	[algokʰ]	(알고)
[kəlʲi]	(걸지)	[ulʲi]	(울지)
[tʰiŋʲi]	(길지)	[molʲi]	(물지)
[nalɗorokʰ]	(날도복)	[nalɗorokʰ]	(날도복)
[hallɗaŋ]	(할다가)	[nəlɗiʲi]	(널지)

流音 다음에서의 硬音化는 體言에서 鼻音과 같이 複合語 境界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니 즉 純粹 國語에 있어서 流音 다음의 사잇소리로 ‘ㅎ’를 사용하여 뒤따르는 첫소리를 硬音化한 것으로 나타난다. (37.a)는 이러한 사잇소리가 基底形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만 表面形으로만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37.b)에서는 流音 다음의 [+cor] 資質을 갖는 舌頂音 /t/, /ç/, /s/ 는 硬音化를 보이고 있지만 唇音이나 軟口蓋音은 硬音으로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漢字語에 局限하는 것<sup>20</sup>으로 끝소리 /r/ 다음에 舌頂音이 올 때는 반드시 硬音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現象으로 規則化할 수 있다.

(38) 流音 다음에서의 硬音化規則

$$\begin{pmatrix} - \text{son} \\ + \text{cor} \end{pmatrix} \rightarrow \begin{pmatrix} + \text{tense} \\ - \text{asp} \end{pmatrix} \quad / \quad [ + \text{liquid} ] \quad \text{ sino } \quad + \quad + \quad \text{---}$$

體言과 用言의 活用은 語幹末音 /r/ 다음에서 전혀 硬音化되고 있지 않음을 각각 (37.c)와 (37.d)에서 볼 수 있다. 오히려 用言의 活用에서 語幹末音이 複子音인 경우에는 母音을 挿入시켜 音節伸張을 일으키고 동시에 硬音化를 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平音의 硬音化는 冠形詞形 語尾 /-ir ~ r/ 뒤에서도 일어난다.

(39) [sɨkʰɨkʰət]	(실을 것)	[tʰarɨlsʰarɨm]	(달릴 사람)
[kamɨlsʰu]	(감을 수)	[kəkʰɨkʰətʰ]	(꺾을 것)

冠形詞形 語尾 /r/ 다음에서의 硬音化는 (39)에서 증명된다. 이는 15세기 中世國語에 있어서 未來를 나타내는 用言의 冠形詞形 語尾는 반드시 /rʰ/로 表記된 例<sup>21</sup>를 살펴 볼 수

20) 원래 入聲 終聲의 ‘t’이 우리 한자음에서는 ‘r’로 변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促急한 入聲의 本質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r’음에 입성다운 촉급감을 附與하기 위하여 “以景補來(以景補來)” 하게 되었으니 그 예로 不崩 日晷 節鏡 등이 訓民正音諺解와 日印釋譜에 나타나고 있다. 허응.

21) 菴 길희 <용 19>, 도라봉 軍士 <용 25> 니르코지 흥배 <訓>

있다. 즉 冠形詞形 語尾로 休息이 수반되어 그 無聲의 休息인 喉頭를 閉鎖하여 그 다음 소리를 喉頭緊張의 硬音으로 내는 경향을 띤 것 같다. 그리하여 同時代의 文獻에 뒤따르는 첫소리를 硬音으로 表記한 것도<sup>22)</sup> 있으니 이는 오늘날에 와서 冠形詞形 語尾 /r/ 다음의 소리를 硬音으로 변하게 하는 궁극적인 要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冠形詞形 語尾 /-ir~r/ 다음에서 硬音化되고 있음은 抽象的 基底形을 /-ir~r/로 보아 /r/가 다음 [-obst]의 音韻과 결합하여 硬音이 되는 規則으로 설명될 수 있다.

(40) 硬音化 規則

$$\begin{matrix}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on} \end{bmatrix} \\ & \begin{matrix} 1 & 2 \end{matrix} \end{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1 \\ \phi \end{bmatrix} \begin{bmatrix} 2 \\ +\text{tense} \\ -\text{asp} \end{bmatrix}$$

(41)	/k'ir3 + kəs/ (갈음 것)	/kAmir3 + su/ (감음 수)	基底形
	š+k'+i3kət'	kAmi13su	中和規則(10)
	s+k'+i3kət'	————	口蓋音化
	sk'+ik'ət'	kAmi1s'u	硬音化規則(32)
	sik'+ik'ət'	[kAm+i's'u]	表面形

이상에서 살펴본 資料地域語의 硬音化는 中部語 및 일부 他地域語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現象까지 보여주는 반면에 歷史性에 입각하여 保守性을 固守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점점 복잡한 社會樣相을 보임에 따라 거기서 발생하는 隱語나 音聲이 더욱 강령하여져서 硬音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22) 반조불역어 <석 6:8>, 고되 갈음 씨비 <석 6:35> 들홀개지라 <석 6:38>

## VI. 有氣音化現象

有氣音化란 平音이나 硬音과는 氣息度の 有無로써 구분될 수 있는 資質로의 變異로, 즉 [+obst, -tense]의 資質을 갖는 平音 /p, t, k, č/가 [-cons, -voc, +asp]의 資質의 有氣音 /p<sup>h</sup>, t<sup>h</sup>, k<sup>h</sup>, č<sup>h</sup>/로 縮約되는 現象을 말한다. 이러한 現象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서 /h/의 위치가 平音의 前後와 關係없이 必須的으로 일어나고 있다. 有氣音化의 일반적인 規則은 다음 (42)와 같다.

(42) 有氣音化 規則

$$\begin{array}{c} \left[ \begin{array}{c} +obst \\ -tense \end{array} \right] \\ 1 \end{array}, h \rightarrow \begin{array}{c} \left[ \begin{array}{c} 1 \\ +asp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2 \\ \phi \end{array} \right] \\ 2 \end{array}$$

規則 (42)에서 有氣音化된 音素는 調音方法에서 當연히 喉頭緊張을 수반하기 때문에 굳이 [+tense]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國語의 音韻體系上 /s/에 [+asp]의 資質을 부여한다 하여도 /s<sup>h</sup>/가 빈 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tense]의 資質만을 갖는 /s/로 되는 것까지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하면, 有氣音을 일으키는 /h/은 有氣音을 相關束으로 가지지 못하는 子音 앞에서는 中和되기 때문에 /t/로 中和된 다음 平音을 硬音化시키는 規則에 따라 /s/는 /s/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h/을 語幹末音으로 갖는 中部語가 濟州地域語에서는 /x/가 挿入되어 音節伸長이 된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基底形 자체에서 /h/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 有氣音化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어 매우 특징적이다.<sup>23)</sup>

특히 /h/과 /s/이 結合하여 [s<sup>h</sup>]로 나타나는 경우는 [čos<sup>h</sup>uda] (총슈니다) 뿐으로 나타나고 '날다, 땅다, 낱다, 뺑다' 등은 濟州地域語에서 각각 '나다, 팅다, 노다, 뺑스다' 등으로 나타나 基底形에서부터 /h/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h/음이 濟州地域語에서 매우 弱화된 형태임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 (43) a. /čap + hi + ta/ → [čep<sup>h</sup>ida] (잡히다)  
           /mək + hi + ta/ → [mek<sup>h</sup>ida] (먹히다)  
           /paŋp + hi + ta/ → [paŋp<sup>h</sup>ida] (끓히다)  
           /tot + hi + te/ → [toč<sup>h</sup>ida] (툇히다)
- b. /sik + hi + te/ → [šigida] (식히다)

23) 本稿 中和現象 (13)參照.

/pʌrk + hi + ta/	→	[pʌlɡida]	(밭하다)
/sʷək + hi + ta/	→	[seɡida]	(떡하다)
/pat + hi + ta/	→	[paʰida]	(반하다)
/ənʧ + hi + ta/	→	[ənʧʰida]	(엷하다)
/anʧ + hi + ta/	→	[anʧʰida]	(얇하다)

-C<sub>1</sub>C<sub>2</sub>-에서 C<sub>2</sub>가 /h/일 경우에는 濟州地域語의 語中 有機音化는 매우 弱化되었다. (43, a, b)는 語幹末音이 [+obst]의 資質을 갖는 音素에 派生接辭, {-hi-}가 연결된 形態에서의 有機音化를 살펴 본 것이다. 中部語나 他地域語에서는 두드러진 有機音化를 보이는 반면 濟州地域語에서는 {-hi-}가 被動的 機能을 가질 때와 使役의 機能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3, a)에서와 같이 被動接辭로의 {-hi-}는 先行의 語幹末子音과 결합하여 有氣音을 生成하고 있다. 그러나 使役接辭로서의 {-hi-}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語幹末音이 [+cor]인 子音 다음에서는 有氣音化가 일어나고 있지만 [-cor]인 子音 다음에서는 /h/음이 弱化되거나 脱落되어 오히려 語幹末音이 연음되어 有聲音化하고 있다.

또한 有機音化를 일으키는 要因이 되는 音素 /h/가 自然形態素에 나타날 때와 語尾로서 나타날 때 또 서로 다른 音韻變化를 보이고 있다.

(44) a.	/kuk ≠ hata/	→	[kukʰada]	(국하다)
	/pap ≠ hata/	→	[papʰada]	(밥하다)
	/tʷək ≠ hata/	→	[tʷəkʰada]	(떡하다)
b.	/ʧip ≠ hata/	→	[ʧipʰada]	(집 많다)
	/os ≠ hata/	→	[otʰada]	(옷 많다)
	/mək ≠ hata/	→	[məkʰada]	(떡 많다)
	/kuk ≠ hata/	→	[kukʰada]	(국 많다)
c.	/pap + hAkok/	→	[pabʌgokʷ ~ pabi jʌŋ]	(밥하고)
	/tʷək + hAkok/	→	[tʷəʌgokʷ ~ tʷəʌgi jʌŋ]	(떡하고)
	/ʧip + hAkok/	→	[ʧibiʌgokʷ ~ ʧibi jʌŋ]	(집하고)
	/sucʰ + hAkok/	→	[sudʌgokʷ ~ suʃi jʌŋ]	(숫하고)

(44, a)에서는 ‘하다(爲, 行)’가 하나의 自立形態素로 쓰임이 강하여 先行語와 單語 境界를 둘 수 있는 條件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先行語의 [+obst]의 資質을 갖는 末音과 ‘하다’의 /h/가 縮約되어 有氣音을 形成하고 있다. 또한 (44, b)의 경우 ‘많다’의 뜻으로 濟州地域語에서 ‘하다’로 通用되는 바, 이것도 하나의 自立形態素로 쓰여 先行語와는 單語 境界를 두는 關係에서 有機音化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44, c)에서 ‘와/과’의 意味로 쓰일 수 있는 語尾 ‘-하고’는 濟州地域語에서는 [ijʌŋ]이라는 語尾로 實現되어 有機音化를 形成할 條件을 회피하는 동시에, 굳이 ‘-하고’

와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아주 약한 有氣性を 갖거나, 또는 有氣音化를 외면하기 위해 /h/가 脫落되는 경우로 보여진다. 따라서 濟州地域語에서의 /h/ 音素는 自立的인 形態素에 끼일 때만 강한 發音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매우 弱화된 發音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은 濟州地域語에서의 /h/ 弱화·脫落現象을 立證해 준다.

(45) a.	[jəŋwa]	(영화)	[čəŋna]	(진화)
	[oʌʌi]	(올래)	[činnik <sup>h</sup> ~ č <sup>h</sup> annik <sup>h</sup> ]	(진흙)
	[kanno]	(관호)	[manna]	(만화)
	[pegiʌŋŋ]	(백일홍)		
b.	[p <sup>h</sup> enani ~ p <sup>h</sup> enappi]	(편안히)	[tadani ~ tadappi]	(단단히)
	[kamapi ~ kamappi]	(가볍히)		
c.	[aop <sup>h</sup> ]	(아름)	[nəi]	(너희)

이상에서 일컫된 語彙들은 /h/가 거의 제 音價로 發音되고 있지 못한을 증명해 준다. 즉 /h/의 脫落은 濟州地域語에서는 [-obst] 資質 다음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45, a)는 앞 音節의 받침에 /h/음이 脫落되면서 完全 順行同化를 거치고 있다. (45, b, c)도 거의 /h/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은 즉 濟州地域語에서의 /h/ 音價가 갖는 有氣性이 매우 약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結果적으로 濟州地域語에서 -C<sub>1</sub>C<sub>2</sub>-의 연결은 C<sub>1</sub>의 位置에 /h/가 올 때 有氣音을 生成하지 못하고, C<sub>2</sub>의 위치에 /h/가 오는 경우 일지라도 매우 制限된 有機音化만을 보이고 있으니, 濟州地域語에서의 有機音化는 다음과 같이 規則化할 수 있다.

(46) 有氣音化規則

$$[-obst] \begin{Bmatrix} \# \\ (+) \end{Bmatrix} \begin{matrix} h \\ 2 \end{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1 \\ +asp \end{bmatrix} \begin{bmatrix} 2 \\ \phi \end{bmatrix} \text{ (passive)}$$

中世 語에서 合用竝書로 쓰인 音素들이 中部語에서는 거의 硬音으로 나타나는 반면 濟州地域語에서는 語頭の 위치에서 有機音으로 實現되고 있으니 이는 濟州地域語의 또 다른 價値로 부각된다.

(47) a.	中世語	濟州地域語	中部語
	베	t <sup>h</sup> e	베
	팔기, 팔기	t <sup>h</sup> aɪ	팔기
	한쪽	han <sup>h</sup> ak <sup>h</sup>	한쪽
	팔굽질	t <sup>h</sup> alɣok <sup>h</sup> č'il	팔굽질

판	tʰan	판 (다른)
딱딱이, 딱딱이	tʰakʰtʰegɪ	딱딱이
따로, 따로	tʰaru	따로
적다, 적다	tʰida	적다
끄르다	kʰrɪtʰda	끄르다 (풀다)
따다, 따다	tʰada	따다
뜯다, 뜯다	tʰatʰa	뜯다
떨다, 떨다	tʰalda	떨다
뜨다	tʰida	뜨다
작다	tʰarapɪtʰa	{ 작다 { 째다
째다, 째다		
찍어지다, 꺾어지다	tʰeəjɪda	찍어지다
찢다	tʰɪjɪda	찢다
두꺼비, 두껍	tutʰebi	두꺼비
도끼	tubi	도끼

濟州地域語에 나타나는 有氣音은 (47)에서 보는 中世國語에서 合用並書로 쓰였던 경우와 有氣音으로 쓰였던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通時的인 側面에서 有氣音은 漢字 導入 當時부터 形成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新羅 以前에서부터 우리 國語에 나타난 것으로 推定되며, 硬音은 15세기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壬辰亂을 기치면서 더욱 우세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濟州地域語에서 나타나는 有氣音은 Gilliéron의 方言周圖說에<sup>24)</sup> 적용해볼 때 15세기 이전의 國語 音韻에 존재했던 有氣音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濟州地域語의 語頭有氣音을 濟州의 風土의 與件과 관련하여 聽覺映象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島民의 心理的 表現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研究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4) 政治文化的 中心地에서 멀리 떨어진 地域語에 古語의 形態가 많이 남아 있다는 說.



## Ⅶ. 結 論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濟州地域語의 無聲 阻害音에 관한 音韻現象은 他地域語와는 다른 特異한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濟州地域語에서 보이는 古語의 殘存으로 說明하는 것 이상으로 中世國語 이전의 純粹 國語의 形態를 再構成 볼 수 있는 중요한 資料를 提示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1.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은 매우 활발하여 體言의 曲用에 있어 母音語尾 앞에서도 中和現象을 거치고 있음은 매우 특징적이다. 반면 用言의 語幹末音에는 母音이 插入되어 音節伸張의 形態로 나타나 대부분의 用言은 中和現象을 회피하고 있다 하겠다.

語幹末子音群은 體言의 경우 母音語尾 앞에서도 子音群 모두가 實現되고 있지 않아 매우 철저한 子音群 單純化를 보임으로써 濟州地域語에서 體言의 中和作用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用言의 경우에는 꽤 복잡한 樣相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子音群에 [+son]의 資質을 갖는 子音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音節伸張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音聲의 實現에서 辨別할 수 있는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는 /k/-系·/t/-系·/h/-系 口蓋音化로 구분할 수 있다.

/k/-系 口蓋音化는 體言이나 用言 또는 純粹 國語, 漢字語 따위를 가릴 것 없이 語頭의 位置에서 /i/ 또는 /j/의 영향에 의해 口蓋音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濟州地域語에서는 口蓋 位置이기만 하면 口蓋音化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는 /h/ 口蓋音化에도 適用되고 있다. /t/-系 口蓋音化는 매우 일반적인 音韻規則을 따르고 있으나 體言의 경우, 語幹末音의 /t/가 口蓋 環境에서 [s]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中世國語의 八終聲體系에서 /s/로 實現된 것들로 濟州地域語에서는 母音語尾 앞에서도 [s]로 나타나는 것이다.

3. 濟州地域語의 語頭硬音化는 주로 2音節語 이상의 語彙들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첫 음절이 [+son] 資質을 갖는 音素로 끝나고 있는 語彙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반면 中部語에서의 硬音이 平音으로 나타나는 隨意的인 交替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복잡한 都市文明의 影響을 덜 받은 島民의 言語心理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中世國語가 濟州地域語에 그대로 實現되는 言語變遷의 保守性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語中에서 硬音化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면서도 매우 隨意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用言의 語幹末音에 派生 接辭 /-ki-/의 연결에서도 매우 활발하여 中部語나 他地域語의 硬音化의 範疇을 증가하는 言語의 改革性도 일면 나타난다.

4. 有機音化는 매우 制限된 環境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有機音化의 要因이 되는 /h/가 濟州地域語에서는 매우 弱화되었거나 脫落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특히 -C<sub>1</sub>C<sub>2</sub>-의 구조에서 C<sub>2</sub>에 /h/가 오는 경우에 被動接辭로 쓰인 /-hi/와의 結合에서는 현저한 有氣音化를 보이는 반면 使動接辭에서는 語幹末音이 [+cor]인 子音 다음에서만 有氣音化를 일으

자는 制約性을 갖는다.

또한, 濟州地域語의 語頭有氣化는 方言周圈說에 關連하여 硬音이 발달하기 이전의 有氣音을 再構해 볼 수 있는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 聽覺映象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島民의 心理的 表現으로 볼 수도 있겠다.

## 參 考 文 獻

- 姜允浩(1957), “國語方言에 있어서의 語頭硬音化 어휘의 分布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제20집 국어국문회.
- 金光雄(1984), “濟州島南部語의 硬音化에 對한 研究”, 濟州大學論文集 제17집.  
 ———(1985), “濟州地域의 口蓋音化에 對한 研究”, 濟州大學論文集 제20집.  
 ———(1986),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에 對한 研究”, 濟州大學論文集 제22집.
- 金次均(1976), “국어의 자음접변”, 『한국 언어학회 언어학 1호』.  
 ———(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중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Ⅳ권 1호.  
 ———(1982), “국어의 약음소들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과정들의 연구” 중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Ⅴ권 2호.
- 金洪植(1985), “濟州島方言의 中間子音에 對하여”, 濟州大學論文集 제18집.
- 金亨奎(1980), “濟州島方言” 『韓國方言研究』  
 ———(1982), 『國語學概論』, 一潮閣.  
 ———(1984), 『國語史概要』, 一潮閣.
- 朴慶來(1984), “槐山方言의 音韻에 對한 世代別研究”, 『國語研究』 제57호, 국어연구소.
- 박장원(1982), “자음군 분류와 자음자질(子音子質)” 『冠嶽語研究』 제7집.
- 李基文·金鎮宇·李想境(1984), 『國語音韻論』 學研社.
- 李基文(1985), 『現代音韻史研究』, 國語學會.
- 이병진(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一志社.
- 李秉根(1985),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 李崇寧(1960), “濟州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攷』.  
 ———(198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鄭政泳(1983), 『忠州地域語研究』,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鄭然榮(1984), 『韓國語音韻論』, 開文社.
- 曹成貴(1983), 『沃川方言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 崔泰榮(1983), 『方言音韻論』, 螢雪出版社.
- 許 雄(1982), 『國語音韻學』, 正音社.  
 ———(1972),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 玄平孝(1961), 『濟州方言研究』, 제1집 자료편.
- 金榮起(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서울: 탐출판사.

---

H.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SCHANE. 'Generative Phonology'.  
Sloat, Taylor, Hoard 'Introduction to Phonology'

## Summary

# The Study of Consonant Phonemic Phenomena in Cheju Dialect

*Hong Sŏng-hae*

Cheju Region forms a natural speech group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inland causing by geographical and cultural speciality. Such speech have a conservatism denying to recognize reformal changes of the mainland speech, as well as a reformativeness having diachronical changes of the isolated region itself.

Voiceless Obstruents of Cheju Dialect prove these both sides by showing particular phonemic phenomena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al dialects.

Neutralization often occurs at the uninflected words. And, at the inflected words, it is avoided by allowing /ɾ/ or /i/ at the final of etymon. This phenomenon is applied to the etymon consonant clusters.

Discriminative /k/ and /h/-Palatalized of Cheju Dialect in Phonetic level are advanced by the regressing /i/ or /j/ at initial position. /t/-Palatalized is a generalized phonemic phenomena but final /t<sup>h</sup>/ in the uninflected word is realized to /s/ at the palatalized environment. That phenomena is explained to be the survival of medieval speech.

Fortis phenomean of Cheju Dialect is typical phonemic phenomena reflecting the conservatism and the reformativeness of Cheju Dialect due to the islanders' linguistic psychology.

Aspirated by /h/ at middle position appears at particular environments but those words of Cheju Dialect which appears at the initial aspirated was all double consonants at medieval spee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archaic words prior to recorded documents.